

조선대생 박봉균씨의 '취업전쟁'

“실력 갖추기전 졸업 엄두 못내 휴학 또 휴학... 해외연수까지 9년만에야 예비직장인 됐네요”

합집 걸러 한명씩 대졸 실업자가 한숨 쉬고 있는 세상이다. 치열한 취업전쟁은 언제부터인가 남들보다 특출한 실력을 갖춘 젊은이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대학 4년 정규 8학기를 마치고 곧바로 취직을 하는 사람은 '슈퍼 히어로'. 요즘 우리 주변엔 사회가 원하는 실력을 갖춘 때까지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7년 차 8년 차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조선대 선박해양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박봉균(27)씨는 입학 9년 만에 졸업을 앞두고 취직에 성공한 경우다.



올해로 대학생활 9년째인데도 아직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선대 선박해양공학과 98학번 동기들이 연구실에 모여 취업준비 공부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호·양대령·김영국·박봉균·조장표씨.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씨는 1998년 입학한 '98학번'이다. 박씨는 2년간 군대를 다녀온 것 말고는 한시도 책을 놓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대학을 아직껏 마치지 못했다. 공부를 못해서일까? 아니다.

박씨의 평균 학점은 4.5점 만점에 3.95점에 달한다. 2학년2학기부터 내리 3학기째 장학금을 받았다. 토익점수도 895점으로 A등급이다. 호주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호주 정부에서 공인하는 국제 영어교사자격증인 테솔(TESOL)도 취득했다. 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뒀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취업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려고 일부러 휴학해 졸업을 늦추거나 정상적인 8학기(4년 과정)보다 1학기 이상 더 다닌 뒤 졸업하는 대학생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광주캠퍼스 재학생 중 오는 8월 졸업대상자 1천623명(남학생 677명·여학생

박씨는 2001년 11월 재대학지만 복학하지 않았다. 영어공부를 소홀히 한 것이 후회됐고 취업이 걱정됐다. 영어실력을 테스트해볼 겸 토익 시험을 치렀다. 990점 만점에 400점. 당장 전남대 영어회화 모임인 '광주 영어회화 왕초보반'에 들어가 1년 동안 실력을 닦았다. 어학연수를 위해 필리핀에도 2개월 다녀왔다. 토익점수는 800점대로 뛰어

전남대생 졸업까지 男 7년 女 5년 서울대생도 절반만 정상 졸업

946명)의 입학 후 졸업까지 평균 소요 연수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7.1년, 여학생은 5.9년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대도 사정이 비슷해, 9학기 등록생 수가 2001년 전체 졸업생 중 24.4%를 차지했으나 2002년 25.3%, 2003년 27.7%, 2004년 28%

1998년 3월	조선대 입학
1999년 7월	2학년 2학기 휴학
9월	육군 현역병 입대
2001년 11월	만기 제대
12월	TOEIC 400점대 득점
2002년 1월	영어회화 초보반
8월	TOEIC 800점대 득점
2003년 6.7월	필리핀 어학연수
8월	2학년 2학기 복학
2004년 3월	두번째 휴학 호주 어학연수
2005년 3월	3학년 1학기 복학
2006년 2월	TOEIC 895점 득점
7월	대우조선 합격 인턴사원
12월	입사예정

가 많아 비행기 값을 포함해 초기비용으로 300만원만 있으면 1년 정도 연수가 가능했다. 호주에 머문 동안 듣기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토익점수도 800점에서 895점으로 올랐다. 이에 만족한 박씨는 2005년 3학년 1학기로 복학해 재학 중이다.

박씨는 최근 실시된 대우조선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14일부터 2주 동안 인턴교육을 받게 됐다. 포스코와 한국감정원 공채 2차 시험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박씨는 “남들보다 4년 늦게 대학을 졸업하게 됐지만 재학 중 원하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돼 대만족”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로 매년 늘어났다. 정상보다 2학기를 더 다니는 10학기 등록자도 2001년 12.1%에서 2002년 12.6%, 2003년 12.5%, 2004년 14.2%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정상적으로 8학기 만에 졸업하는 학생 수는 2001년 58.5%에서 2002년 55.5%, 2003년 51%, 2004년 48.2%로 해마다 감소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박시장-與의원 '화해'

디지털컨버전스기공식 '선거 앙금' 풀어

5·31 지방선거로 인해 깊게 패인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박광태 박시장과 박광태 박시장과 박광태 박시장의 R&D(연구·개발) 특구 지정 탈락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이미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데다, 노벨상 정상회의 예산에 대해서도 첨예한 갈등을 보여왔다. 아직 화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계기는 있었다.

바로 박 시장과 염동연(광주 서갑) 의원이 1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룡동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건립 기공식장에서 만나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화해를 다짐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화해 선언은 둘만의 사적 만남이 아닌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공개된 자리에서의 약속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

염 의원은 이날 기공식 축사에서 “선거 때 생긴 오해 때문에 지금까지 (박 시장과) 앙금이 남아있다면 내가 풀겠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 당선·낙선자 상관없이 내가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도 “염 의원과 내가 어떤 사이인데 갈등이 있겠나”며 염 의원의 덕담을 흔쾌히 받아 들었다.

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광주지역 일부 의원들이 화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다. /박지정기자 jkpark@



박광태 박시장과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13일 광주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기공식에서 만나 화해의 뜻을 다짐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북장관급 회담 결렬...中, 北설득 실패

'北 미사일' 다시 중대위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논의한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되는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설득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발사도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남북은 회담 3일째인 13일 숙소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서 전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회담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북측 대표단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선 이날 오후 4시 40분을 전후해 김해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갔다.

전날에 이어 이날 수석대표 면담에서도 북측은 쌀 지원 문제를 주로 제기하고 우리는 미사일 사태의 출구가

보일 때까지 쌀 지원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 밝혔

다. 힐 차관보는 이날 오전 워싱턴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숙소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우리는 평양에서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임무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금 5.6천 원 지급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1062-970-5009-9
 새로운 미래를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상담전화: 065-5051 ▶ 1089-360-5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 상담전화: 02-777-7300 ▶ 02-777-7300
 TEL: 1577-7300 FAX: 1577-7302

30대여성
80% 피부미용 전문가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딤화이트닝
 IOPE